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자료실	4
배추 생리장해	4
첨부파일(2)	4

배추 생리장해

작성일 2018.10.17 09:56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83

첨부파일(2)  배추-배추-생리장해.htm 1278 hit/656.2 KB [다운로드](#)
 캡처.JPG 151 hit/118.6 KB [다운로드](#)



고랭지배추 재배시 문제가 되는 생리장해는 추대, 석회 및 붕소결핍증, 깨씨무늬증 등이 있다. 장다리발생은 초여름재배에서, 석회결핍은 한여름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붕소결핍증은 장다리발생이나 석회결핍증과 같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심한 피해를 준다. 주로 발생하는 재해는 근래 고랭지 기상환경의 악화로 가뭄, 습해, 고온, 한해 등이다.

■ 추대

■ 증상

배추가 유묘기에 저온에 처하면 화아가 분화하여 본포 정식후 고온, 장일, 강광 조건이 되면 결구가 되기 전에 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추대라 한다. 고랭지배추의 경우 초여름 재배시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적정 파종기보다 조기에 파종할 때 주로 발생된다.

■ 원인

평균기온 12℃이하의 저온에서 7~10일 정도 경과하면 성장점에 꽃눈이 분화하여 고온, 장일조건에서 추대현상이 나타난다. 배추는 생리특성상 가을에 재배하는 작물인데 추대에 둔감한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여름재배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대는 품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20℃에서도 꽃눈분화가 일어나서 고온장일 조건에서 추대가 되는 품종도 있다.

■ 대책

저온에 꽃눈분화가 둔감한 품종을 재배한다.

육묘시 온상의 최저온도는 13℃이상 이 되게 관리하고 묘는 본엽 8~10매(30~35일)까지 육묘후 정식한다. 배추는 눈으로 본엽 4매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면 성장점에 이미 50~60매의 잎이 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엽 8매 정도까지만 잘 관리하면 결구에 필요한 엽수가 확보되므로 그 후에 저온을 받아 꽃눈분화가 되더라도 수확에는 지장이 없다.

배추생리장해

목록

GANGJIN

Web Contents

